

오은하 피아니스트, 첫 쇼케이스 열린다

‘무화가’ 앨범 발매 기념 22일 문화공간 이룸서 개최

한국의 민요 11곡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편곡하여 앨범으로 발매한 음악감독이자 작곡가, 피아니스트 오은하가 오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소리의 고장인 전주에서 첫 쇼케이스 무대, ‘무화가(無花歌)’를 선보인다.

앨범명 ‘무화가(無花歌)’는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이자 노래라는 뜻으로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이어지는 우리네 삶의 노래인 민요를 뜻한다.

오은하는 버클리 음악대학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영상음악전공 과정 중에 있으며 오은하 재즈트리오, 이그르산 재즈트리오 등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뿐만 아니라 디즈니 애니메이션, 워너 브라더스 애니메이션 ‘볼과제리’, 일본 TV 애니메이션 ‘아파파마’, ‘북극백화점의 안내원’ 한국판 음악연출감독, CJ ENM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쇼 고흥 분청사기요지, MBC 애니메이션 음악 제작 외에 음악강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실력과 뮤지션이다.

이렇게 여러 음악적 활동을 하고 있는 오은하의 이번 앨범 ‘무화가(無花歌)’에 수록된 민요 11곡은 오은하의 음악적 기반인 재즈와 블루스, 클래식을 바탕으로 독특한 리듬적 아이디어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솔로피아노로 편곡되었으며 특별히 CD에는 민요의 정신과 함께 오은하의 고향이자 국악의 고장인 전주를 향한 애정을 담아 ‘전주 완판본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더 했다.

앨범의 소재가 한국의 음악인 민요인만큼 국악의 도시인 전주에서 앨범발매 첫 공연을 기획했고 이후 전국투어 연주를 통해 다양한 도시의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공연의 특별 게스트로는 완성 전국국악대제전 일반부 대상을 수상한 소리꾼 이용선이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이며 쇼케이스는 문화공간 이룸에서 열린다.

/김재훈 기자



피아니스트 오은하 '무화가' 앨범 발매 쇼케이스 포스터

박성수 작가 개인전 ‘눈의 편하’ 개최

24일~12월 5일 전주문화재단 릴레이전시 ‘동문그림가게’ 다섯 번째 전시

박성수 작가의 전시 ‘눈의 편하’가 열린다.

20일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지역 시각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릴레이전시 ‘동문그림가게’의 다섯 번째 전시로,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동문거리에 위치한 ‘공유화음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명 ‘눈의 편하’는 시각 중심으로 예술을 판단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한 20세기 프랑스

사상사와 같은 이름이다. 박 작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태초 생명체의 형태와 진화 과정을 독창적인 재료로 구현하고, 관람객이 촉각을 통해 작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출하며 동명의 사상과 맥락을 공유한다.

작가는 “41억 년 전 초기 지구의 단순한 원소들이 특정한 조건에서 화학적으로 결합해 생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상상하며 작업한다”고 밝혔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다종이와 알부미늄을 활용해 유기적 형태를 현대적 조형 언어로 풀어낸 이번 전시에서는, 박성수 작가 특유의 재료 해석과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한중우호주간 행사 초청 문화공연 펼쳐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지난 19일, 중국 산둥성 지난에서 열린 ‘2025 한중우호주간’ 행사에 초청되어 문화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은 주중 한국대사관 및 주중 한국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공식 행사로,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의 친선과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국악원은 △태평소와 민요, 무용이 어우러진 상서로운 별가를 일여나니 △민요와 부채춤으로 구성된 춘풍화우 △관과 소고춤을 중심으로 펼쳐진 풍류지세 등 전통 연희 3작품을 무대에 올렸으며, 현지 관람객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해 한국 전통예술 특유의 흥(興)과 신명(神興)을 생동감 있게 전하며 문



화적 공간대를 이끌어냈다.

국악원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중국 산둥 지역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고,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한 국제 교류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여성·가족친화기업 소통한마당 열려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은 20일 별관 2층에서 ‘2025년 여성·가족친화기업 소통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통한마당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 연계 △가족친화인증 확대 △위라벨 친화 조직 문화 확산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이 논의됐다. 행사는 도내 여성·가족친화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위라벨 경진대회 우수기업 시상식,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협약식,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또한 기업 대표들과 재단, 유관기관이 직접 소통하는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돼 기업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이어졌다.

/장은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2부 ‘굿패와 무당’ (16)

저기 움막이 보인다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낮건지기굿을 제대로 하려면 당골래가 적어도 대어섯은 되어야 하고 악사들도 구색을 갖춘 삼현육각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처녀 총각의 부모의 재정상태가 그리 넉넉하지 못했으므로 굿의 주요 절차만 연행하기로 하였다.

신동태와 연가래이 번가라하면서 굿을 주관하였다. 먼저 총각의 뉘를 호수에서 건지는 굿을 시작했는데, 총각의 집에서 조왕신들에게 망자가 돌아오면 잘 위로해달라는 가택굿을 간단히 진행한 다음 저수지로 자리를 옮겼다.

집에서 가져간 그릇에 총각의 인적사항을 적은 한지와 총각의 속옷 상의를 넣어 새끼줄로 묶은 다음 줄로 신대와 연결한 뒤 그릇을 총각이 빠진 방쪽으로 던졌다. 총각 집에서 가져간 수탉도 함께 물로 던졌다.

신동태는 용왕님에게 총각의 혼을 잘 건질 수 있도록 구원하였고 장자풀이의 일부를 애절하게 읊었다. 강병도와 박규환은 신동태의 애절한 무가에 박자를 맞춰주며 답하고 장구와 북으로 분위기를 띄웠다.

방죽에서 총각의 뉘를 건져 총각의 집으로 돌아와 씻김굿을 진행하였고 이어서 처녀집에 가서도 씻김을 연행했다.

“남준이하고 명희는 집에 돌아갔다가 내일 오거라.”

씻김굿이 끝난 뒤에 박규환이 말했다. 오늘로 끝날 줄 알았던 곳이 내일까지 이어지는 통에 남준과 명희의 학교 문제도 있고 어린 동생들이 집에 있었기에 그제 걸렸기 때문이다.

남주와 경철 말고도 그 사이 남준과 명희는 동생이 돌아나 더 생겨 남주와 경철이 다른 동생 둘을 챙기는데 한계가 있었다.

남준과 명희는 왔던 길을 되잡아 걸었다. 명희가 자주 뒤로 물러서는 통에 남준은 걸음을 멈추고 명희가 따라올 때까지 기다렸다.

“나하고 같이 가는 게 싫어?” 남준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다. 명희는 걸어오면서 힘겹 남준을 쳐다봤다.

“누가 싫데?”

“그럼 왜 뒤로 처지는 거야?”

“몰라! 얼른 가.”

명희는 남준의 등짝을 짝 소리 나게 때렸다. 남준은 재미있는 듯 실실 웃었다.

두 사람이 막 시작로로 진입했을 때 갑자기 먹구름이 시커멓게 물려오더니 두 사람이 서 있는 곳만 온통 검컴해졌다.

“저쪽은 구름이 없는데, 여기만 소나기가 내리려나 봐.”

명희는 걱정 실린 눈으로 하늘을 보며 말했다. 두 사람은 걸음을 더 빨리했다. 신작로를 버리고 산속 길로 접어들자 비가 쏟아졌다.

“명희야, 내 손 잡아.”

남준은 명희의 손을 잡고 뛰었다. 비는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두 사람은 금세 옷이 다 젖고 말았다.

“어디 피할 데 없을까?”

두 사람은 비 피할 곳을 찾았으나 산속 길에서 당장 비를 피할 곳은 없었다. 남준의 눈에 초교로 지붕을 이은 작은 초막이 보였다.

“저기 움막이 보인다.”

두 사람은 살필 것 없이 곧바로 초막으로 뛰어갔다.

초막은 상여집이었다. 상여를 옮길 때 쓰는 기다란 막대가 가지런히 선반에 올려 있고 만장 깃발과 상여를 꾸미던 알록달록한 색종이를 단 기구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이 들어가 있기에 상여집은 너무 좁았다. 어쩔 수 없이 남준과 명희는 몸을 밀착할 수밖에 없었다.

남준도 명희도 이미 비에 흠뻑 젖어버려 저고리와 치마, 바지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명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상여집 안을 두리번거렸는데 눈에 겁이 실려 있었다.

“무서워?”

“무섭긴…….”

“앞으로 당골을 할 사람이 이런 걸 무서워하면 안 되지.”

“누가 무섭데?”

명희는 새침한 눈으로 남준을 쳐다봤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몸을 부르르 떨기까지 했다.

“추워?”

“그, 그러게…….”

남준은 벼락 명희를 안았다. 명희는 남준에게서 몸을 빼려다가 가만히 있었다. 남준은 팔을 더 크게 벌려 명희를 품에 꼭 안았다.

“안 춥지?”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으슬으슬하던 건 조금 가졌는데 가슴 안에서 염통이 난리였다.

풍당풍당으로 시작해 쿵쿵쿵당으로 발전하더니 쿵쿵쿵당으로 금세 수위를 높였다.

온몸의 세포가 뻗뻗하게 경직되었고 남준과 명희는 몸으로 온통 피가 물려 뒤에 취한 듯 얼얼했다.